동학농민혁명 진원지 전라도·제주역사 기행

새로 쓰는 동학 기행 3

지역별 농민운동 전개 담아
새로운 관점·안목 제공
입체적 역사 구성 평가

동학농민혁명 횃불의 시작점이자 종점인 전라도는 갑오년 한 해 동안 민중이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는 도량이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성취해 관민상화의 새 정치를 펼쳐낸 '해방구'였다.

소설가이자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인 채길순 작가는 그간 한반도 전역의 동학 사적지를 답사해 '새로 쓰는 동학 기행' 시리즈를 출간해 왔다.

신간 '새로 쓰는 동학기행 3'은 완결편이기도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적 진원지였던 전라도와 제주를 조명하고 있어 내용이 더욱 풍부하다.

저자는 팔도의 동학농민혁명을 시와 군 단위로 세밀하게 서술해 왔다. 한반도 전역의 동학 사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조사해 사건이나 인물 중심인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입체적인 역사상을 구성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민중 전체의 참여로 전개된 사건임을 입증한 셈이다.

1880년대 초까지 고난을 거듭하던 동학혁명이 1890년에 접어들면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지방 관료들의 수탈도 극심해졌다. 전라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로 보면 횃불의 시작점이자 종점이다. 조선팔도 중 전라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로 그 지평을 펼쳐낸 시기였다. 새로운 세상의 꿈이 실현 직전까지 갔었고, 그 높이만큼의 좌절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작가는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실질적인 주도로 치러진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 수많은 잔인한 학살이 벌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시 전라남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지역이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책은 전라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활동의 요충지였던 광주와 동학농민혁명 전후 시기 다양한 투쟁 활동을 벌인 영광 등 전남 22개 시·군과 전북, 제주 동학의 전개 과정의 특징들을 객관적으로 풀었다.

일본군의 참전으로 패배를 거듭한 동학농민군은 살아남기 위해 무리를 해산시키고 피신해야 했다. 지역 유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보군 토벌대가 마을을 지키고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동학농민군은 관-일본-민보군에 붙잡혀 희생되거나 인근의 산속으로, 혹은 강진의 대구 칠량을 거쳐 해남으로, 보성 등으로 배를 타고 숨어들어 생명을 보존해야 했다.

장흥 지역 참여자는 전국 참여자 3,644명(명예회복을 위한 참여자 명부 기준) 중 386여 명에 이른다.

대개 1890년대에 동학에 입교한 교도와 접주급 동학 지도자들이며, 교조신원운동 시기에 금구취회, 보은 취회 참여로부터 백산 기포, 황토재 전투, 황룡 전투, 전주성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2차 기포 이후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 남원성 전투, 강진성 전투, 병영성 전투, 회령진 전투, 벽사역 전투, 석대들 전투, 대내장 전투, 옥산 전투, 자울재 전투, 월출산 불티재 전투 등에 참여했다.

이들은 장흥 지역에서 체포돼 심문을 받아 처형되기도 했지만, 강진, 해남, 보성, 영암, 진도, 나주 지역으로 도피 중에 붙잡혀 희생된 이들이 많다. 당시 고흥 동학농민군의 무기 수준은 수성군의 보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고흥 동학농민군이 어느 정도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책은 각 지역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그 속에서 명멸해간 동학농민군들의 '대행진'을 서술하고 있다.

채길순 작가는 "우리 역사에서 민중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들끓었던 동학농민혁명 이를 통해 조선팔도에서 최소 10만명에 이르는 민초가 개벽을 꿈꾸며 풀잎의 이슬처럼 쓰러졌다"며 "이번 책이 전라도 전봉준의 동학이라는 제한된 인식을 넘어 조선팔도의 동학농민혁명사라는 이해의 보폭을 넓히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383쪽. /이나라 기자

오덕렬 작가 첫 번째 시집 '여름밤 별 이야기' 출간

죽음 목전 이어령이 전하려 한 마지막 이야기

오덕렬 작가가 전라도 방언을 활용한 산문 시 68편을 담은 시집 '여름밤 별 이야기'를 출간했다.

저자의 시에는 전라도 방언이 살아있으며, 현대시에서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있다. 자연주의 사상과 동심 그리고 미학화된 애향심과 토속성도 엿볼 수 있다. 사랑과 낭만이 있고 때론 철학적 로고스가 담겼으며 인위적으로 문장을 끊어 리듬을 살리려 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문장부호까지 살려 온전한 문장으로 모아진 시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겼다.

교육자 출신인 오 작가는 한국수필 추천으로 등단했다. 계간 '산문의 시'를 통해 '산문의 시 평론' 신인상을 받았다. 수필집 '복만동 이야기', '고향의 오월', '항꾸네 갑시다' 등과 평론집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 '창작 수필을 평하다' 등이 있다. /이나라 기자

미공개 육필원고 '눈물 한 방울'
147편 시·수필 110편 엄선

"나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시인들이 만들어 낸 말은 아닐 것이다. 지상에는 없는 말, 어느 맑은 영혼이 새벽 잡초에 떨어진 그런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시대의 지성'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올해 1월 23일 새벽 검정 스케치북을 꺼내 죽음에 대한 단상을 213자로 적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적은 글이다. 항암 치료를 거부한 그는 아플 때마다 2㎝ 두께의 이 노트를 펼치고 글을 썼다. 192쪽 분량의 노트 중 21쪽은 채우지 못해 여백으로 남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전 장관이 병상에서 쓴 미공개 육필원고 '눈물 한 방울'(김영사)이 최근 출간됐다. 147편의 시·수필 중 엄선한 110편에 그가 손수 그린 그림도 함께 담겼다. 2019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개월간의 기록으로, 초기엔 정돈된 글씨에 그림도 많았으나 뒤로 갈수록 그림 수도 급격히 줄고 글씨도 삐뚤삐뚤해진다.

이 전 장관은 에세이, 소설, 시집, 희곡과 시나리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160여 권의 책을 썼지만,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기진 않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눈물이 '툭' 떨어진 순간의 단상과 내밀한 고백이 담긴 이 책이 사실상 유일한 자서전이자 회고록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전하려 한 마지막 말은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에 이은 '눈물 한 방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짐승과 달리 인간은 정서적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인공지능(AI)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눈물은 흘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 나와 다른 이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관용의 눈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전 장관은 서문에서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며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문은 그가 올해 1월 고 대표에게 사후 노트 출간을 맡기며 불러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책에서는 이 전 장관이 죽음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죽음은 열매처럼 익어간다. 먹어볼 수는 없지만 떫고 아릴 것"이라고 했다가 "배가 아프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창조적 사고의 끈을 놓지 않았다. 클레오파트라, 이상과 정지용, 공자와 노자 등의 인물을 문학, 철학, 예술, 물리학 등의 지식과 어우르며 이질적인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유를 펼쳐 보인다. /연합뉴스

새책 나왔어요

◇레즈비언의 산부인과=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졸업식 때 상영된 다큐멘터리 '톡톡 깨도 돼?'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냈다. 레즈비언들은 이야기한다. 산부인과는 모든 여성이라면 스스럼없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이프북스. 139쪽.

◇사라지는 말들-말과 사회사=영문학자이자 한국 문단 1세대 평론가인 유종호 작가가 2020~2021년 '현대문학'에 총 23회에 걸쳐 연재한 에세이를 묶었다. 저자는 이번 저서에서 사회 변화의 일환으로서의 '어사'를 다뤘다. 낯설어진 언어들을 설명하고자 역사적인 함의, 실생활에서 사용한 용례 등을 세밀하게 서술한다. 현대문학. 424쪽.

◇어느 날 거울에 광인이 나타났다=미국 뉴욕 법률구조협회 '리걸 에이드'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며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잭 맥더멋 작가의 정신질환 극복기를 담은 회고록이다. 저자는 현실감각과 정체성이 흔들린 환자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강조한다. 코호북스. 400쪽.

◇오늘부터 나도 글잘러=레드벨벳, 숀, 강다니엘 등 인기 아이돌의 노래를 작사한 안영주 작가가 쉽고 흥미로운 글쓰기 방법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다. 월별 독서 기록장, 사설 읽고 구조 파악하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팁을 전수한다. 북트리거. 180쪽.

◇다음 팀장은 AI입니다=세계적 사상가이자 행동과학자 데이비드 드 크리머는 기술혁신이 불러온 새로운 환경에서 리더가 알아야 할 AI에 관한 통찰과 인간 직원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기술 추세와 경영 환경을 분석해 AI시대가 선택하는 유능함의 조건을 알려준다. 위즈덤하우스. 272쪽.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